

여수 금오도 도로 정비 착수... 섬박람회 앞 접근성 개선

도, 3단계 사업 본격화... 남해안 연결망 확장 이동권 강화... '백리섬섬길' 금오도까지 연장

전남도가 26일 전남 여수시 금오도에 서 지방도 정비공사 착공식을 열고 단계 별 도로 개선 사업에 돌입했다. 2026년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방문객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

에 섬 주민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 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사업의

재정 부담과 추진 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2023년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쳐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업은 3단계로 나뉜다. 우선 1단계로 섬박람회 개막(9월 5일) 이전까지 기존 도로의 노후 구간을 정비한다. 포장 보수와 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통행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광객 이동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단계는 금오도~대두라도~월호도를 연결하는 총연장 3.42km 해상교량 건설이다. 총사업비 2367억원이 투입되며, 2027년 착공해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교량이 완공되면 도서 간 접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3단계는 돌산에서 금오도 인근 연도까지 31.5km에 이르는 지방도 863호선의 국도 승격 추진이다. 이 가운데 안도~연

도 6.95km 구간은 국비로 건설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전 구간을 하나의 간선도로 망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전국 최초 관광도로로 지정된 백리섬 섬길은 여수 돌산에서 고흥 영남까지 11개 교량으로 이어지는 해상 연결망이다. 여기에 해상교량 2개가 추가되면 금오도 까지 도로망이 확장된다. 연결망이 완성되면 '비령길'로 대표되는 금오도의 해안 절경 접근성이 개선되

고, 남해안 관광 동선이 연계되면서 체류형 관광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섬 주민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제행사 지원과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사업"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단계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2026 나주방문의 해' 선포 26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린 '2026 나주방문의 해' 선포식에 참석한 윤병태 나주시장과 주한 외국인 대사관, 관광 유관기관과 단체, 여행업계, 이점공공기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교통공사, 시민기자단 운영 10명 내외 구성...영상분야 신설

광주교통공사(사장 문석환)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황과 주요 역세권 소식 등 광주도시철도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시민의 눈으로 기록하고 전달할 '시민소통기자단'을 운영한다. 올해 스포츠 등 영상 콘텐츠 트렌드에 맞춰 영상 분야(6명)를 새롭게 선발한다. 영상 분야는 개인 지원뿐 아니라 2인 1조 팀 지원 방식을 처음 도입했으며, 블로그 분야(4명)와 함께 총 10명 내외의 기자단을 구성한다. 시민기자단 지원 희망자는 다음달 13일까지 공사 홈페이지에서 지원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gimetro@grtc.co.kr)로 접수하면 된다. 양동민 기자

전남 5개 시·군, 어르신 스포츠강좌 지원사업 선정

광양·영암·강진·보성·진도...건강한 노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광양시와 영암군, 강진군, 보성군, 진도군이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지원사업 선정으로 총 4억3000만원(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비를 확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스포츠강좌를 운영한다. 광양시는 국궁, 댄스스포츠 강좌와 워크숍을 운영하고, 영암군은 체조, 탁구, 볼링, 게이트볼 강좌와 교류전을 개최한

다. 강진군은 파크골프 강좌와 지도자 과정, 페스티벌을 추진하며, 보성군과 진도군은 생활체육과 수영, 시니어축구, 배드민턴 강좌를 운영한다. 각 시·군은 어르신의 신체적 특성과 생애 주기를 고려해 인지가능 향상과 치매 예방(국궁), 기초체력 강화와 교류 활성화(댄스스포츠·게이트볼), 저강도·저위험 생활체육 종목 확대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 강좌 운영을 넘어 지역 내 교류전·페스티벌과 연계해 어르신

시, 무주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돕는다

임대주택 보증금 평균 750만원 지원...최대 6년간 거주

광주시는 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한부모 주거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지역 내 임대주택 46호가 확보돼 있으며, 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평균 750만원 내외의 보증금을 지원한다. 다만, 자립 의지 강화를 위해 임대료와 관리비(월 평균 17만원), 입주보증금(70만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계약 기간은 2년 단위로, 입주 연장 심사를 거쳐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중장기 생활안정이 가능하다.

제공하며,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취업 훈련·학습 비용 지원, 자녀 양육 공백 때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1회차 집중 신청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다. 입주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입주를 결정하며, 심사는 오는 3월13일 오전 10시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 상담 및 신청은 광주동구가족센터(062-419-19650, 010-6847-6050)로 하면 된다. 홍보물에 안내된 정보머니(QR코드)를 통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경화 시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도 주거공간 제공과 함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상담과 물품 지원을

성가롤로병원, 신규 심뇌혈관 권역센터 지정

전남 성가롤로병원이 신규 심뇌혈관질환 권역센터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신규 심뇌혈관질환 보건복지부는 26일 신규 심뇌혈관질환 센터 5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역센터로는 전남 성가롤로병원, 지역센터는 전북 대진병원, 부산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제주 제주한라병원, 충남 천안충무병원 등 4곳 선정됐다.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뇌혈관질환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기존에 지역센터였던 전남 성가롤로병원이 이번에 권역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현재 지역센터가 없는 5개 시·도(광주·대구·세종·강원·전남)를 대상으로 지역센터 1곳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최종 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의료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 광남일보 국민안전연중캠페인

운전할 땐 안전벨
안전거리·전방주시·벨트착용

SLOW

광주경찰청, 전남남도경찰청,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교통공단, GTCL,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구소